

#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감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윤\*\* · 임정하\*\*\*

##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자극추구성향, 부모감독, 위험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고,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8개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은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감독은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위험행동을 하는 정도는 평균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둘째, 중다회귀분석 결과, 중학생들의 경우 부모감독의 수준에 따라 자극추구성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신의 일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자극추구성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모감독에 대한 지각이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고등학생들의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감독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위험행동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계가 부모감독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관련하여 자극추구성향과 부모감독이 갖는 중요성을 밝혔으며,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이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정에 따라 적절한 개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청소년, 자극추구성향, 위험행동, 부모감독

\* 이 논문은 최지윤(2018)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논문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jhlim@korea.ac.kr](mailto:jhlim@korea.ac.kr)

##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적 단계이며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한 청소년은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험행동과 같은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기 쉽다. 더욱이 오늘날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은 각종 위험행동과 관련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써의 위험행동에 정보접근의 용이성이 더해져 나타나는 무모한 행동의 결과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학교급에 따라 진로문제, 학업스트레스 등의 환경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며 신체적 성숙도나 인지·정서적 발달의 측면에서도 시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개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권위에 대해 반항하는 행동, 청소년이라는 지위에 어긋나는 행동,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Wheeler et al., 2017). 위험행동에는 그 결과가 심각하지는 않을지라도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행동도 포함된다(Arnett, 1992). 본 연구에서는 위험행동을 반드시 심각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일탈, 반항, 반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일탈 행동에는 술, 담배, 음란물 등이 있으며 반항 행동에는 부모나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용돈을 타는 등의 행동이 있다. 반사회적 행동에는 무단결석 및 가출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위험행동을 잘 자제하지 못할 경우, 신체적 손상과 같은 개인적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한상철, 2002). 나아가 청소년이 보이는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이후 사회적인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며, 그 지속성 및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순래, 2011; Loeber & Farrington, 2000). 따라서 청소년들이 순간적 욕구로 위험에 빠지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위험행동 예방에 힘쓸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공격성(이상문, 2017), 긴장

감(박정신, 황성현, 2013), 자기통제력(한진수, 2016) 등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요인들은 청소년기에 유독 급속도로 발달하는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생물학적 기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조윤주, 2010b).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개인의 특성 중에서 다른 시기보다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자극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이 있다. Zuckerman(1971)에 따르면, 자극추구성향은 여러 가지 독특하고 복합적인 자극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이며 그러한 경험을 얻기 위해 사회적,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다.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충동성이 높고 성급한 경향이 있으며(Arnett, 1992; Zuckerman, 1979) 바람직하지 않은 욕구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승수, 2015; Pokhrel, Sussman & Stacy, 2014; Steinberg et al., 2017). 특히, 자극추구성향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예측해주는 강력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Arnett, 1992; Zuckerman, 2007).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은 순간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활동이 고통보다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Zuckerman, 1979), 자극추구성향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개인의 자극추구성향이 부적응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지만, 자극추구성향이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McKay, Skues & Williams, 2018). Arnett(1992)에 따르면, 자극추구성향이 어떻게 표출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청소년도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환경적 지원이 있다면, 이러한 성향이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자극추구성향의 부정적 발현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관계(고현자, 2000; 기광도, 2011), 부모와의 의사소통(한상철, 이수현, 2006; Hartos & Power, 2000), 비행친구와의 접촉(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조윤주, 2010a) 등이 있다. 이들 중 부모는 청소년기까지 오랜 시간 소통해온 대상이며, 가정 내 부모의 양육태도는 개인의 위험행동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중 하나이다(박영숙, 임안나, 2017; 한진수, 2016; Cleveland, Gibbons, Gerrard, Pomery & Brody, 2005). 청소년기 자녀들

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싶어 하며,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성장은 부모의 통제나 처벌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정옥분, 2015). 그러므로 자녀를 통제하거나 처벌하는 것 보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대화를 바탕으로 한 부모감독의 기능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인식하고 부모를 신뢰할수록 자신의 외부활동에 대해 부모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정병삼, 2010),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은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환경적인 조절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서봉언, 김경식, 2015). 부모감독(parental monitoring)이란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친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모의 지식이다(Stattin & Kerr, 2000). 부모감독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수단으로(고정자, 2005), 적절한 감독을 위해 부모와 자녀 간 많은 상호작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Kerr & Stattin, 2000), 자녀의 행동을 부모가 단순히 감시하여 통제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청소년기 자녀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감독자로서의 부모 역할은 청소년 자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 자녀를 효과적으로 훈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남현미, 옥선화, 2001). 선행 연구(허정경, 2007; 홍영수, 오선영, 2010)에서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들이 순간적인 욕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쉽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오미경, 박성연, 1998; 우민혜,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 때 청소년들은 위험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5). 또한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했을 때, 청소년의 음주, 흡연, 폭행과 같은 일탈행동이 감소하였으며(정병삼, 2010; 조혜정, 윤명숙, 2010; Li, Feigelman & Stanton, 2000) 청소년의 비행 참여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봉언, 김경식, 2015). 앞서 살펴본 여러 연구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지각한 높은 수준의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이 부적응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예방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부모감독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 한 연구(정지현, 김판희, 2014)에서는 중학생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높은 감독 수준은 이들의 자극추구성향이 폭력, 절도, 부적절한 성행동과 같은 위

험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박시현, 2015)에서는 부모감독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청소년의 학교급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중학생들과 달리,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학진학에 대한 부담과 진로결정이라는 새로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이창식, 정미나, 김윤정, 2012). 즉,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발달단계는 모두 청소년기라 하더라도 학업에 대한 압박감과 입시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 요인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소년에 대한 논의는 그 학교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극추구성향과 부모감독 및 위험행동의 관계 양상을 살펴보려면 이들의 학교급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자극추구성향과 부모감독 및 위험행동의 정도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극추구성향의 경우,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만 15~16세 사이에 최고점에 이른다(Steinberg et al., 2008; Zuckerman, Eysenck & Eysenck, 1978).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시기의 자극추구성향이 중학생시기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급에 따른 자극추구성향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부모감독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Hipwell et al., 2008)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이은주, 2007)에서 부모의 동일한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민감도나 반응성이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청소년기 위험행동에 대한 연령대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위험행동의 경우, 고등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위험행동에 더 많이 참여 할 가능성이 있는데, 청소년들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우민혜,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극추구성향과 부모감독, 위험행동의 경향에 대해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중학생집단과 고등학생집단을 구분하여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감독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 부모감독이 자극추구성향

의 부정적 발달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서 기능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부모감독, 위험행동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중학생집단과 고등학생집단에서 자극추구성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의 감독수준의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254명, 여학생 217명이었다. 이들 중 중학생은 192명으로 1학년 41명(8.7%), 2학년은80명(17.0%), 3학년 71명(15.1%)이었고, 고등학생은 279명으로 2학년 123명(26.1%), 3학년 156명(33.1%)이었다. 중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5.14세( $SD=.77$ )였고 고등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8.49세( $SD=.60$ )였다.

### 2. 측정도구

#### 1) 자극추구성향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옥분 등(2010b)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자극추구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 하위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스릴 및 모험추구 요인(8문항)은 위험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예시 문항으로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보고 싶다' 등이 있다. 일탈적 경험추구 요인(6문항)은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해 사회적 규범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된다면 반사회적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범주에 속하는 행동들에 대한 추구를 나타낸다. 예시

문항으로는 ‘술이나 담배를 눈치 볼 필요 없이 해보고 싶다’ 등이 있다. 새로운 경험 추구 요인(6문항)은 비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예시 문항으로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모임이나 파티에서 마음대로 웃고 떠들고 싶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s  $\alpha$ 는 스릴 및 모험추구 .90, 일탈적 경험추구 .82, 새로운 경험추구 .79, 전체 문항 .89로 나타났다.

## 2) 부모감독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감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Stattin과 Kerr(2000)가 개발한 Parental Monitoring Scale을 황숙영(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 요인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 본인이 어디를 다니는지, 무엇을 하는지, 자신의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 부모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밤에 친구들과 어울릴 때 어디 가는지 알고 계신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며, 1개의 역채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가 자신의 일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들은 요인분석을 이용해 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본 표본에서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 3) 위험행동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지현(2013)이 사용한 위험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실업계 고등학생표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본 연구자들이 본 연구대상들의 자료를 이용해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7문항을 제외하고 총 13문항의 응답치를 이용해 위험행동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험행동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다음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일탈 행동 요인(5문항)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을 포함

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있다’ 등이 있다. 반항 행동 요인(5문항)은 청소년에게 사회적, 관계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생길 수 있는 행동을 포함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몰래 부모님의 돈을 훔친 적이 있다’ 등이 있다. 반사회적 행동 요인(3문항)은 학칙과 같은 규칙 및 법률과 관련된 부정적 결과가 생길 수 있는 행동을 포함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무단으로 학교를 결석해 본 적이 있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3점 Likert 척도로 ‘그렇지 않다(1점)’부터 ‘자주 그렇다(3점)’까지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자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일탈행동 .77, 반항행동 .64, 반사회적 행동 .62, 전체 문항 .81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먼저, 서울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에 대한 문항 이해 정도와 절차상의 문제 여부, 소요시간을 파악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2018년 4월, 서울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8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에 사용된 설문지는 자극추구성향, 부모감독, 위험행동 문항들과 인구통계학적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사전에 연구자가 중·고등학교의 교사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양해를 구한 뒤,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의 작성 요령과 주의사항, 비밀 보장 및 연구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학교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을 동봉한 우편을 발송하여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비밀 보장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응답에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배부된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3부)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7부)를 제외하고 471부(97.92%)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과 부모감독 및 위험행동에서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교급에 따른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각 표본에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가 가정을 충족시킴을 확인하였다.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후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단순기울기 검증을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부모감독, 위험행동의 학교급 차이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부모감독 및 위험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급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에서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t = -5.32, p < .001$ ). 즉, 고등학생집단( $M = 3.19, SD = .76$ )이 중학생집단( $M = 2.80, SD = .78$ )에 비해 자극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감독에서도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t = 3.91, p < .001$ ). 즉, 중학생집단( $M = 3.75, SD = .73$ )이 고등학생집단( $M = 3.46, SD = .81$ )보다 부모감독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중학생집단이 고등학생집단에 비해 부모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더 잘 알고 있다고 지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위험행동에 대한 보고에서도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t = -4.56, p < .001$ ). 이는 고등학생집단( $M = 1.29, SD = .28$ )이 중학생집단( $M = 1.18, SD = .22$ )보다 위험행동을 더 자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부모감독 및 위험행동의 학교급별 평균비교 결과**

	전체( <i>N</i> =471)	중학생( <i>n</i> =192)	고등학생( <i>n</i> =279)	<i>t</i>
	M ( <i>SD</i> )	M ( <i>SD</i> )	M ( <i>SD</i> )	
자극추구성향	3.03 (.79)	2.80 (.78)	3.19 (.76)	-5.32 <sup>***</sup>
부모감독	3.58 (.79)	3.75 (.73)	3.46 (.81)	3.91 <sup>***</sup>
위험행동	1.25 (.26)	1.18 (.22)	1.29 (.28)	-4.56 <sup>***</sup>

\*\*\**p*<.001.

## 2. 중학생집단과 고등학생집단의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조절효과

조절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청소년의 학교급별 자극추구성향, 부모감독 및 위험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학생표본과 고등학생표본을 나누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중학생표본에서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r=.30, p<.001$ ).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감독은 위험행동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r=-.27, p<.001$ ). 반면 중학생들의 자극추구성향은 부모감독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고등학생표본에서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r=.32, p<.001$ )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부모감독은 위험행동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r=-.22, p<.001$ ). 고등학생들의 자극추구성향도 부모감독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정리하면,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부모감독 및 위험행동의 관계의 패턴은 중학생표본과 고등학생표본 모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 모두 신기하고 짜릿한 자극에 대한 경험을 선망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자주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일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위험행동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2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부모감독 및 위험행동의 상관관계 (N=471)

	자극추구성향	부모감독	위험행동
자극추구성향	-	.10	.32***
부모감독	.02	-	-.22***
위험행동	.30***	-.27***	-

주. 고등학생 표본(n=279)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위쪽, 중학생 표본(n=192)의 상관관계는 대각선 아래쪽에 제시하였음.

\*\*\* $p < .001$

### 1) 중학생집단의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조절효과

중학생집단의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 간의 관계를 부모감독수준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성별은 가변수화하여 남학생 0, 여학생 1로 코딩하였다.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성차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만 투입된 모형1은 중학생들의 위험행동에 대하여 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F=7.39, p < .01$ ), 성별( $\beta = -.19, p < .01$ )은 중학생들의 위험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위험행동을 더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추구성향, 부모감독, 이들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모형2의 설명력은 18%가 높아졌으며( $F=14.37, p < .001$ ), 자극추구성향( $\beta = .32, p < .001$ )과 부모감독( $\beta = -.32, p < .001$ ) 및 이들의 상호작용항( $\beta = -.17, p < .05$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의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계가 부모감독의 수준에 따라 조절됨을 의미한다.

표 3

중학생집단의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조절효과 ( $n=192$ )

	모형 1		모형 2	
	B	$\beta$	B	$\beta$
성별	-.09	-.19**	-.08	-.17**
자극추구성향 (A)			.07	.32***
부모감독 (B)			-.08	-.32***
(A) × (B)			-.03	-.17*
<i>adj R</i> <sup>2</sup>	.03		.20	
$\Delta R$ <sup>2</sup>			.18	
<i>F</i>	7.39**		13.02***	
$\Delta F$			14.37***	

\* $p < .05$ . \*\* $p < .01$ . \*\*\* $p < .001$ .

중학생들의 위험행동에 대해 자극추구성향과 부모감독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회귀방정식<sup>2)</sup>을 사용하였다. 회귀방정식의 Z값에 부모감독의 평균과 평균±1 표준편차 값을 대입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1과 같이 산출하였다.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감독의 수준이 낮은 경우,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감독의 수준이 높은 경우, 자극추구성향에 따른 위험행동의 증가 정도가 매우 완만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감독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극추구성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y = b_0 + b_2Z + (b_1 + b_3Z)X$ ,  $b_0$ 는 상수 값,  $b_1$ 은 독립변인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_2$ 는 조절변인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_3$ 는 상호작용항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Z는 조절변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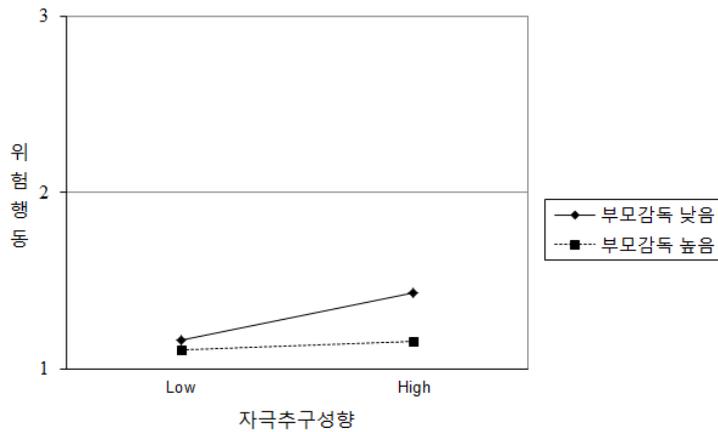


그림 1. 중학생집단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자극추구성향과 부모감독의 상호작용 효과

단순기울기 검증 결과, 표 4와 같이 중학생들의 자극추구성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단순기울기는 부모감독 수준이 낮은 경우(-1SD) .12( $t=4.47, p<.001$ )였고, 부모감독 수준이 평균인 경우 .08( $t=5.01, p<.001$ ), 부모감독 수준이 높은 경우(+1SD) .04( $t=2.23, p<.05$ )로 나타났다. 즉, 조절변인인 부모감독의 조건 값이 커질수록 단순기울기는 점점 작아졌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이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일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들의 자극추구성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표 4

중학생집단에서 부모감독의 조건 값에 따른 자극추구성향의 단순기울기 검증

조절변인		B	SE	t
부모감독	<i>M - 1SD</i>	.12	.03	4.47***
	<i>M</i>	.08	.02	5.01***
	<i>M + 1SD</i>	.04	.02	2.23*

\* $p<.05$ . \*\*\* $p<.001$ .

2) 고등학생집단의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조절효과

고등학생집단의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성별이 투입된 모형1은 고등학생들의 위험행동에 대하여 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F=8.47, p<.01$ ), 성별( $\beta = -.17, p<.01$ )은 고등학생들의 위험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위험행동을 더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추구성향, 부모감독, 이들의 상호작용항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형2의 설명력은 17%가 높아졌다( $F=18.93, p<.001$ ). 이 모형에서 자극추구성향( $\beta=.33, p<.001$ )과 부모감독( $\beta = -.25, p<.001$ )은 각각 고등학생들의 위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고등학생들의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더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자신의 행동이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위험행동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계가 부모감독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고등학생집단의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조절효과 ( $n=279$ )

	모형 1		모형 2	
	B	$\beta$	B	$\beta$
성별	-.10	-.17**	-.08	-.15**
자극추구성향 (A)			.12	.33***
부모감독 (B)			-.09	-.25***
(A) × (B)			-.03	-.08
<i>adj R</i> <sup>2</sup>	.03		.18	
$\Delta R$ <sup>2</sup>			.17	
<i>F</i>	8.47**		16.73***	
$\Delta F$			18.93***	

\*\* $p<.01$ . \*\*\* $p<.001$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교급을 구분하여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감독의 수준이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과 부모감독 및 위험행동에서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집단의 자극추구성향이 중학생집단의 자극추구성향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독특하고 복잡한 자극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동안 자극추구성향이 꾸준히 증가하여 만 15~16세경에 최고점에 이른다는 기존의 주장들과 일치한다(Ball, Famill & Wangeman, 1984; Steinberg et al., 2008; Zuckerman, Eysenck & Eysenck, 1978). 따라서 자극추구성향은 청소년 전기인 중학생 시기보다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시기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학생집단이 고등학생집단보다 부모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김성경, 우연경, 최영인, 2017)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감독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중학생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을 비교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집단이 상대적으로 부모감독을 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신체적·인지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되는 역할기대가 달라지며(한국청소년개발원, 2011) 그 환경이 서로 다른 학교급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바 역시 차이가 있다. 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해 중학생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부모감독은 자녀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지식으로, 이를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많은 대화가 필수적인데,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학교에서의 생활시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대화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전체 연구대상자의 33.1%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짧고 부모와의 대화도 학업적 성취가 진로에 집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고등학생집단이 중학생집단보다 위험행동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위험행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한상철, 200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행동을 더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Duell et al., 2018; Gullone, Moore, Moss & Boyd, 2000). 특히, Duell과 동료들(2018)은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연령별 위험행동의 참여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위험행동이 청소년기동안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11개국에 걸쳐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한상철, 2002)에서는 만 12세 청소년들은 성생활이나 음주행동을 규범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만 18세 청소년들은 이러한 행동을 보다 허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비교적 성년에 가까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행동에 대한 도덕적 부담감이 덜하여 위험행동에 쉽게 참여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급을 구분해 각 집단에서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련성에 있어 부모감독의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중학생집단에서는 부모감독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집단에서는 부모감독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중학생들의 경우 부모가 자신의 일상생활과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자극추구성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되었다. 특히,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중학생들이 부모감독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는 자극추구성향의 수준이 비슷한 중학생들이 부모감독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보다 위험행동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이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더 자주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신의 일상과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가 이를 지각하고 있다면 그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고등학생집단의 경우, 위험행동에 대한 자극추구성향과 부모감독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들의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감독을 높게 지각할수록 위험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청소년의 비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이재경, 2012)와 맥을 같이한다. 즉, 부모감독이 고등학생들의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계를 조절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높은 수준의 부모감독은 고등학생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청소년

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물리적 처벌이나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의 행동은 오히려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을 유발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자녀와 대화하는 부모의 행동은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이를 수용하도록 한다(Rice, 2001).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충분한 대화를 전제로 하는 부모감독은 청소년기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 자녀를 효과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한 연구(Paulson & Spota, 1996)에 따르면, 청소년과 부모 모두가 만 15세 이후부터 만 19세까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역할은 감소한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Horvath & Zuckerman, 1993)에 따르면, 청년기인 대학생의 위험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의 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에 비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어 부모보다 친구와 같은 다른 관계적 요소가 위험행동 참여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보다 청년기의 도래를 앞두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으로 성장하고 자율성이 증대되어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위험행동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학생들과 달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험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뿐 아니라 개인, 친구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발달적으로 자극추구성향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 청소년기, 특히 중학생 시기에 위험행동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의 부적응적 행동과 관련하여, 예전의 생물학적 이론과 달리 최근의 생물사회학적(biosocial)이론에서는 개인적 소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데(정옥분, 2015), 이는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 행동으로 발현되기까지 환경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극추구성향이 타고난 생물학적 기제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부모는 적절한 모니터링과 개입이라는 환경적 지원을 통해 자극추구성향이 청소년기의 부정적 발달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감독을 측정함에 있어, 부모가 스스로 보고한 부모감독의 수준보다 청소년

년이 지각하는 부모감독의 수준이 그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더 의미 있다는 제안에 따라(Cottrell et al., 2003) 청소년 자녀의 자기보고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보고 또한 감독을 행하는 주체의 지각을 통해 부모감독의 실제와 영향을 다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부모의 보고도 포함한다면 적절한 부모감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위험행동 참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위험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중 ‘반항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 Cronbach's  $\alpha$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측정도구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부모감독의 수준이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계를 조절해주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성별 외에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이 있음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개인, 부모, 친구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켜 자극추구성향의 영향력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관련하여 자극추구성향과 부모감독이 갖는 중요성을 밝혔으며, 특히 개인의 선천적 성향인 자극추구성향과 위험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완충효과가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이후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개입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고현자 (2000).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가족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기광도 (2011). 가정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분석: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10(2), 3-24.
- 김성경, 우연경, 최영인 (2017).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자기주도성 및 학업성취의 종단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23(3), 199-223.
- 김연정 (2014).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 조절의 조절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호, 안호용, 김선애, 김선엽 (2002). 가족의 구조, 기능과 청소년비행. **한국청소년연구**, 35, 225-267.
- 남현미, 옥선화 (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노웅철 (2005). **사용자의 특성이 온라인 게임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극추구성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시현 (2015). **청소년의 학습된 무력감과 감각추구성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보호요인의 조절효과**.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민. (2010).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놀이치료연구**, 13(3), 75-88.
- 박영숙, 임안나 (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매개효과로. **교정복지연구**, 49, 59-85.
- 박정선, 황성현 (2013). 청소년의 긴장감, 사회유대감,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77-94.
- 박정주. (2011). 교사애착이 학생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3), 333-352.
- 서봉언, 김경식 (2015). 남녀 집단에서 살펴본 청소년 비행과 부모감독의 종단관계

-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1, 87-108.
- 신미, 유미숙 (2010). 청소년 성발달에 따른 자극추구성향과 음란매체 접촉경험 및 반응의 영향력 분석. **청소년학연구**, 17(11), 205-225.
- 오미경 (1997).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미경, 박성연 (1998).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11-227.
- 우민혜 (2015). **감각추구성향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래지향과 자 통제력의 조절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문 (2017). 자녀들의 공격성과 부모의 강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11(3), 77-101
- 이순래 (2011). 비행지속현상에 있어 위험요인, 보호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범죄와 비행**, 1, 23-47.
- 이재경. (2012). 청소년기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청소년복지연구**, 14(2), 51-73.
- 이은주 (2007).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의 관계에 대한 보호요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8(2), 31-57.
- 이창식, 정미나, 김윤정 (2012). 중·고등학생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의 예측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3(1), 31-55.
- 이해경, 김혜원 (2011). 남녀 중학생들의 문제행동 경험 정도와 위험수준별 실태. **청소년복지연구**, 13(1), 163-188.
- 정병삼 (2010).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비행친구 접촉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억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8(2), 149-165.
- 정옥분 (201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조윤주 (2010a).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과 비행의 관계에서 비행친구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17(2), 107-123.
-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조윤주 (2010b).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7(1), 385-398.
- 정지현 (2013).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의 관계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정지현, 김판희 (2014).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 207-225.

조혜정, 윤명숙 (2010). 부모감독과 청소년 음주의 상호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259-285.

하승수 (2015). 청소년의 기질과 부적응행동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2(6), 1-32.

한국청소년개발원 (2011). **청소년환경론**. 서울: 교육과학사.

한상철 (2001).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8.

한상철 (2002).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실제의 분석. **청소년행동연구**, 7, 85-108.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3). **청소년 문제행동: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한상철, 이수현 (2006). 청소년 비행 관련 요인들의 집단간 비교. **미래청소년학회지**, 3(1), 1-14.

한진수 (2016). 지위비행청소년의 비행이행과정 영향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23(7), 59-85. doi:10.21509/KJYS.2016.07.23.7.59

허정경 (2007).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연구. **아동복지연구**, 5(4), 39-57.

홍영수, 오선영 (2010). 애착과 감독이 청소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16(2), 319-336.

황숙영 (2007). **부모애착, 부모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rnett, J. (1992). Reckless behavior in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2, 339-373. doi:10.1016/0273-2297(92)90013-R

Ball, I. L., Farnill, D., & Wangeman, J. F. (1984). Sex and age differences in sensation seeking: Some national comparison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5(2), 257-265. doi:10.1111/j.2044-8295.1984.tb01897.x

- Cleveland, M. J., Gibbons, F. X., Gerrard, M., Pomery, E. A., & Brody, G. H. (2005). The impact of parenting on risk cognitions and risk behavior: A study of mediation and moderation in a panel of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6*(4), 900-916. doi:10.1111/j.1467-8624.2005.00885.x
- Cottrell, L., Li, X., Harris, C., D'Alessandri, D., Atkins, M., Richardson, B., & Stanton, B. (2003). Parent and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risk involvement.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3), 179-195. doi:10.1111/j.1467-8624.2005.00885.x
- Duell, N., Steinberg, L., Icenogle, G., Chein, J., Chaudhary, N., Di Giunta, L. et al. (2018). Age patterns in risk taking across the worl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7*(5), 1052-1072. doi:10.1007/s10964-017-0752-y
-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C. (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2), 231-250. doi:10.1177/0743558400152003
- Hartos, J. L., & Power, T. G. (2000). Association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reports for assessing relations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4), 441-450. doi:10.1023/A:1005158425861
- Hipwell, A., Keenan, K., Kasza, K., Loeber, R., Stouthamer-Loeber, M., & Bean T. (2008).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girls'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on, and parental punishment and warmth: Six year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663-677. doi:10.1007/s10802-007-9206-4
- Horvath, P., & Zuckerman, M. (1993). Sensation seeking, risk appraisal, and risky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41-52. doi:10.1016/0191-8869(93)90173-Z
- Li, X., Feigelman, S., & Stanton, B. (2000). Perceived parental monitoring and health risk behaviors among urban low-income African-American children

- and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7(1), 43-48. doi:10.1016/S1054-139X(99)00077-4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 Psychology*, 36(3), 366-380. doi:10.1037/0012-1649.36.3.366
- Loeber, R., & Farrington, D. P. (2000). Young children who commit crime: Epidemiology, developmental origins, risk factors, early interven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737-762. doi:10.1017/S0954579400004107
- McKay, S., Skues, J. L., & Williams, B. J. (2018). With risk may come reward: Sensation seeking supports resilience through effective co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 100-105. doi:10.1016/j.paid.2017.09.030
- Paulson, S. E., & Sputa, C. L. (1996). Patterns of parenting during adolescence: Perceptions of adolescents and parents. *Adolescence*, 31(122), 369-382.
- Pokhrel, P., Sussman, S., & Stacy, A. (2014). Relative effects of social self-control, sensation seeking, and impulsivity on future cigarette use in a sample of high-risk adolescents. *Substance use & misuse*, 49(4), 343-351. doi:10.3109/10826084.2013.841241
- Rice, F. P. (2001). **청소년심리학**. 장영숙, 신민섭, 설인자 (편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doi:10.1111/1467-8624.00210
- Steinberg, L., Albert, D., Cauffman, E., Banich, M., Graham, S., & Woolard, J. (2008). Age differences in sensation seeking and impulsivity as indexed by behavior and self-report: Evidence for a dual system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44(6), 1764.
- Steinberg, L., Icenogle, G., Shulman, E. P., Breiner, K., Chein, J., Bacchini, D. et al. (2017). Around the world, adolescence is a time of heightened sensation seeking and immature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Science*, 1-13. doi:10.1111

/desc.12532

- Wheeler, L. A., Zeiders, K. H., Updegraff, K. A., Umaña-Taylor, A. J., Rodríguez de Jesús, S. A., & Perez-Brena, N. J. (2017). Mexican-origin youth's risk behavior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The role of familism values. *Developmental psychology, 53*(1), 126-137. doi:10.1037/dev0000251
- Zuckerman, M. (1971). Dimensions of sensation see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6*(1), 45-52. doi:10.1037/h0030478
-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dale, NJ: Erlbaum. doi:10.1037/h0030478
- Zuckerman, M. (2007). *Sensation seeking and risky behavio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Zuckerman, M., Eysenck, S. B., & Eysenck, H. J. (1978). Sensation seeking in England and America: cross-cultural, age, and sex comparis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1), 139. doi:10.1037/0022-006X.46.1.139

## ABSTRACT

### Adolescent sensation seeking in relation to risk-taking behavior: Parental monitoring as a moderator

Choi, JiYoon\* · Lim, JungHa\*\*

The study aimed to test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in the relation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risk-taking behavior amongs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 total of 471 adolescent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y came from eight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reas. Student-report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ssess sensation seeking, parental monitoring and risk-taking behavior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on average, the high school students reported a greater level of sensation seeking and more frequent risk-taking behaviors compared to the middle school students. Conversely, middle school students reported a higher level of parental monitoring compared to high school students. Second, parental monitoring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risk-taking behavior amongst middle school students.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were not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risk-taking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lose parental monitoring could contribute to preventing risk-taking behavior amongst adolescent students.

Key Words: adolescents, sensation seeking, parental monitoring, risk behavior

투고일: 2019. 6. 10, 심사일: 2019. 8. 2, 심사완료일: 2019. 8. 12

---

\* Departmen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